

개혁한다더니 개혁...체육회장 출연금 '꼼수'

두얼굴의 광주시체육회장

<상> 약속 파기 불실행정

‘첫 민선시대를 맞이한 광주시체육회가 되레 관선 체제보다 퇴행하고 있다.’

광주 체육계에서는 시체육회가 참신한 체육행정과 개혁을 기대했던 체육인과 시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시체육회장의 출연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광주시체육회 산하 위원회는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이 규정으로 정해진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의 출연금 액수를 3분지 1로 대폭 축소했다.

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위원 11명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체육회장 출연금 관련 사무

회장 출연금 6억 약속→당선되자 2억원으로 셀프 감액

지역체육인들 “단체장으로서 신뢰 상실...관선보다 퇴보”

관리규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임기 3년 동안 매년 2억원 이상씩 총 6억원을 납부한다’는 규정을 ‘임기 첫해에만 2억원 이상 출연한다’고 바꿨다.

또 ‘출연금의 사용은 회장의 업무추진 및 품위유지로 한다’고 수정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회장은 3년 동안 2억원 이상만 납부하면 된다. 개정안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 직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출연금도 회장의 개인 돈인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다.

‘매년 2억원 출연금 규정’은 민선 첫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열악한 체육회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체

육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15일 당선된 김회장은 첫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인 2월 4일까지 출연금을 납부해야 했다. 시체육회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를 고지, 후보들로부터 ‘출연금 규정 준수’ 동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출연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고 최근 규정까지 바뀌면서 크게 줄어든 액수의 출연금을 내게 됐다.

체육계에서는 이와 관련, “돈을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썼다. 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만큼 이미 단체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결국 회장이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시간을 벌다가 규정을 변

경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개혁과 변화를 내세운 민선 체육회에 기대를 걸었던 체육인,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출연금 규정 변경에 대한 광주시체육회의 해명도 공색했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출연금 납부 의무 규정은 광주시체육회에만 있다. 임기 동안 6억원을 내게 되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체육인의 회장 출마를 막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어 규정을 바꾼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체육회는 회장 출연금 규정 마련 당시 “구체육회 등에서도 임원이 출연금을 내는 마당에 시체육회도 행보를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연금 규정 개정 논란과 관련, 김 회장은 시체육회 간부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약속한 2억원을 내겠다. 부족하면 추가로 더 내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다산 형제 호남예찬 담은 서간집 나온다

정민 교수, 정약용 아들 흑산도 방문 기록 ‘부해기’ 발견

다산 정약용, 손암 정약전 두 형제의 호남 예찬 관련 편지가 조만간 서간집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정민 교수는 “이들 다산의 둘째 아들 정학유가 둘째 큰 아버지 정약전을 만나기 위해 흑산도를 방문한 기록 ‘부해기’(浮海紀)도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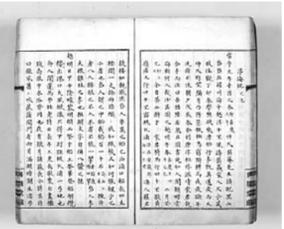
정민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1일 다산 집안의 책인 ‘유고’(遺稿) 10책 중 8·10책 가운데 정학유의 문집 ‘운포유고’(耘圃遺稿)에서 ‘부해기’(浮海記)를 확인했으며, 아울러 호남 예찬 내용이 담긴 다산 형제의 서간문도 문답식으로 구성해 큰 책으로 묶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민 교수는 이번 자료를 신안군 의뢰로 분석했으며, 1970년대 다산학을 주도했던 김영호 전 경북대 교수의 소장본을 확인해 새로 공개했다.

1일 기자회견과 통화에서 정민 교수는 “다산과 손암이 유배지 강진과 흑산도에 대해 ‘서로 좋은 곳’이라고 일종의 토론을 하는 편지 내용 등 흥미로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산의 편지에 따르면 “강진은 한 겨울에도 땅이 부드럽고 물러서, 쟁기는 사람이 밟아 있고, 배추와 겨자가 옛 갈래서 푸르며, 새끼 병아리는 노랗다”고 말한다. 손암은 “흑산도의 경우는 수(水)이다. 물이란 물건은 기(氣)가 가까워,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가볍고도 맑다”고 기술한다.

정민 교수는 이들 두 형제가 나는 편지는 원고지만만 1000매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다산이 형 손암에게 보낸



다산의 둘째 아들 정학유의 흑산도 방문 기록 ‘부해기’

편지는 ‘여유당집’에 실려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형제의 편지를 문답식으로 구성된 적은 없었다.

또한 정약용 형제의 호남 예찬과 아울러, 다산의 아들 정학유가 둘째 큰 아버지 정약전을 만나기 위해 흑산도에 방문한 여정을 기록한 ‘부해기’의 존재를 확인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다.

‘부해기’에는 흑산도 풍광과 풍속, 특산물 등 다채로운 내용이 일기 형식으로 담겨 있다. 특히 흑산도 여정을 노래한 시와 고하도에서의 감흥, 고래에 대한 단상 등은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정학유가 흑산도를 가게 된 것은 부친인 다산의 권유 때문이었다. 1807년 정약전의 아들 학조가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죽자, 다산은 형 약전을 위로하기 위해 유배지 흑산도로 둘째 아들을 보냈다.

한편 정민 교수는 이번 자료를 신안군 의뢰로 분석했다. 그는 ‘부해기’를 담은 보고서와 함께 다산 형제가 주고받은 서간문을 번역해 책으로 묶어낼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67개 해수욕장 순차 개장

단체 자제·방역 지침 준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1일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260여개 해수욕장이 7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이에 정부는 해수욕장을 통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관련 방역지침을 확정해 배포하는 동시에 현장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전국 267개소 해수욕장이 개장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휴원을 이어간 광주의 어린이집이 일제히 재개원한 1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교사와 북구청 여성아동과 보육지원팀 직원이 장난감과 교구를 소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방역지침과 관련, “우선 이용자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중소형 해수욕장을 이용해주시길 당부한다”면서 “회사, 학교 수련회 등 단체 방문을 자제하고 가족 단위 등 소규모 방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서객들의 중소형 해수욕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해수욕장 방문객수 등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관리사무소 등 해수욕장 내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에는 발열 검사, 손 소독, 방문기록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백사장의 차량 시설은 2m 간격으로 설치하고, 샤워장은 한 칸 떨어져 사용하며 침 뺐기 등을 자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수도권 종교모임 감염 급속히 확산...사망자도 1명 발생

신규환자만 30여명...방역당국 “예배·소모임 자제” 당부

코로나19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종교단체 관련 확진자가 운데 사망자도 나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발(發)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단 관련 종교 시설에 집단 예배는 물론, 성경 공부나 목회자 모임 등의 소모임도 자제해 줄 것을 긴급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

부장은 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5월 이후 종교 행사 또는 모임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총 6건”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5월 이후 종교 행사 또는 모임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인천과 경기지역 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미 30명을 넘어섰다. 우선 인천·경기 지역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한 성경공부 모임을 중심으로 확

진자가 잇따르면서 인천에서는 11개 교회에서 21명이, 경기에서도 2개 교회에서 2명이 각각 확진됐다.

방대본은 개척교회 간 기도회 및 찬양회 등을 통해 참석자 간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이들은) 한 번의 노출이 아니라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매일 교회를 번갈아 가며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진행했다”며 “참석했던 교회, 또 (모임마다) 참석자들이 조금씩 다르기에 전수조사를 해야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형 긴급생활비 36만 가구 지원 전망

신청 마무리 1200억원 투입

전남도내 54만여 가구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2만 가구가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향후 조사에서 4만여 가구가 더 증가해 최종적으로 36만여 가구에 12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청 마감일인 지난 5월 29일 기준 약 54만 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는 당초 예상 대비 약 17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약 32만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6만여 가구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 최종적으로 당초 계획된 32만 가구 대비 4만여 가구 늘어난 36만여 가구에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원대상이 증가한 사유는 고령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수, 상품권 지급 등 적극적인 민원 대응, 건강보험료 등 공적자료 일괄제공 및 열람으로 서류 간소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된 18만여 가구에 대해 유선 및 서면(우편)으로 긴급생활비지원 제외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따른 구제 여부 등에 대한 사항도 안내했다.

또 사업취지에 맞게 이의신청 가구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토록 시·군에 당부했다. 지금까지 이의신청 848가구 중 653가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의신청 대비 77%의 가구를 구제 지원한 바 있다. /연합뉴스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6. 23(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6. 16(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기적의 침술
현대의학으로 잘못고치는 병

고혈압, 당뇨병, 중풍마비
불치의 통증, 남녀성욕감퇴

고대의술침침을 한번만 맞으면
단한번 치료로
모든 병을 고칩니다.

부산 010-8491-206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이하늘(970831-XXXXXX)
- 최후주소: 전남 함평군 해보면 유정길 1-22 (금리리)
- 등락기준지: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 127
- 피상속인 망 이하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년단513호로 신청하여 2020년 5월 2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6월 2일
- 상속인: 이명렬(690310-XXXXXX) 북포시 평화로153번길 9,304동 1403호 (옥암동, 우미불무법)
- 신고기간: 2020. 6. 2 ~ 2020. 8. 11.
- 채권신고처: 상속인 이명렬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이복순(291130-XXXXXX)
- 최후주소: 전남 영광군 병성면 전곡리길 100-1
- 피상속인 망 이복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년단513호로 신청하여 2020년 5월 2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6월 2일
- 상속인: 조연순(470605-XXXXXX) 전남 영광군 병성면 용곡로 15
- 신고기간: 2020. 6. 2 ~ 2020. 8. 11.
- 채권신고처: 상속인 조연순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진옥(380512-XXXXXX)
- 최후주소: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안북로 206 (이월리)
- 피상속인 망 김진옥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0년단81호로 신청하여 2020년 5월 2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6월 2일
- 상속인: 김정철(741122-XXXXXX)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안북로 206 (이월리)
- 신고기간: 2020. 6. 2 ~ 2020. 8. 11.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정철의 주소

산행안내

6월3일(수)
▲광주청록산악회 6월3일(수) 전남 신안 비금도 선왕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6:00, 교직원공제회관 06:10, 예술회관 후문 06:20, 각화동 현대물류 06:3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6일(토)
▲광주청록산악회 6월6일(토) 여수 남도 상산 해안트레킹, 봉선동태마트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 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청

6월10일(수)
▲광주청록산악회 6월10일(수) 충북 제천 동산-작성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 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 07: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17일(수)
▲광주청록산악회 6월17일(수) 경남 거창 우두산-의상봉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 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